주기도 외에는 다 가짜기도다

(마태복음 6장 5~9a)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기도 외에는 다 가짜 기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주기도 외에는 다 가짜 기도다'
십자가 복음을 생활 속에 적용하자는 말씀을 전하게 된 뒤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마음 놓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몫과 기업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생활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오랫동안 기도함을 통해 마음의 영적 기쁨과 시원한 물이 우러나는 깊은 샘을 발견하는 성취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제한되어 버리기에 길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가 짧아진 이유는 이제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대상에 대해 살아있으면서 기도를 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은총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은 평생 뇌세포의 4~6%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슈타인 같은 천재들의 경우에나 8%정도를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이 수치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평생 4~6%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는 개념이 신앙에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주시는 은총의 양과 크기와 깊이는 엄청난데 실제로 그 은총의 극히 일부밖에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십자가 복음이 약속해 주는 은총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차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음식을 차려놓는 것입니다. 이때에 말씀을 듣는 것은 차려놓은 음식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음식이 맛있다고 판단되면 입에는 침이 고이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실은 '음식을 먹고 싶어 침이 고입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라는 말에는 차려놓은 음식이 맛없어 보여서 먹고 싶지 않든지,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은혜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없이는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려진 음식 같은 말씀을 먹는 기도의 방법은 주기도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설교자가 말씀 사역에 힘을 쓰는 이유는 듣는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로서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을 단 하나의 주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다양한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위한 단 하나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허락하신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외에는 다 가짜 기도입니다. 이 점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뿐이라면 이제까지 참 엉뚱한 기도를 해온 셈입니다. 주기도를 통해 복음이 약속한 바다 같은 은총을 4~6%만 누리던 삶을 10%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20%에서 30%로 40%로 점점 더 많이 누려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야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준비하신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주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주기도가 유일한 기도라는 것

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에 대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유일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오류를 바로 잡아보고자 합니다. 이 오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오류는 가장 치명적으로 여겨지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이렇게'라는 단어의 이해에 대한 오류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문장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이렇게'라는 단어가 주기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오해를 했습니다. 주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기도인 이유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이렇게'라는 단어 속에 답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본문에서 등장한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를 설명하신 뒤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단어에는 '위선자나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는 단어는 위선적인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위선적이거나 이방인과 같은 상태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선자나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므로'와 '이렇게'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주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첫 번째 '그러므로'와 '이렇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주기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부분은 전반부로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후반부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 까지는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고정관념의 오류입니다.
주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는 형식상으로도 나열식이거나 병렬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이다, B이다, C이다, D이다'라는 설명은 나열식입니다. 또 'A=B이다, C=D이다'라는 설명은 병렬식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이다 그래서 B이고 또한 B이기 때문에 C이며 C이기 때문에 D이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니 그 나라가 임함과 뜻이 이루어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려니 일용할 양식을 주심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

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야 말로 내 인생에서 성공이고 형통이고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구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과 시험에 들지 않음은 이것을 위해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져야 할 조건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에 감추어져있는 효과를 100%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류는 주기도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주실 때에는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기도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주기도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류는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직 주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도 전체를 기도하든지 부분적으로 기도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주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몇 백 쪽이나 되는 기도에 관한 책을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기도라든지 관상기도라든지 그 어떤 형식에 구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기도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라는 별명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혹은 '허락하신 유일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조미료하면 미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멸치다시다, 쇠고기다시다 등 갖가지 조미료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주기도 하나뿐입니다. 주기도가 기도입니다.

우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선자나 이방인의 기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는 주기도가 있고 이에 대비되는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위선자나 이방인의 기도의 근원적인 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에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함을 통해 주기도가 유일한 기도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바른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외식입니다.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일례로써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곧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어떻게 위선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접해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위선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는 주기도에 앞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단함이 없다면 반드시 위선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위선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위선의 예를 세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윤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에서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혹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세상의 돈 건강 성공 형통 등과 같은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의 호흡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지금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분명히 밝히십니다.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돈을 좋아하면 돈을 아까워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의 위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면 됩니다. 돈 아까워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까워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을 믿듯이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승진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섬깁니다. 이러한 위선적 기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곧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회사문제 등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으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세상에 묶여 위선적 상태로 기도하려고 하지만, 이제 골방에서 나올 때에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리라'는 다짐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위선적이고 이방인과 같은 마음 상태를 주기도를 통해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근심걱정이 태산 같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를 하는 동안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대상이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갑니다. 돈과 형통은 없을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가지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위선자와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돈 걱정으로 시작해서 돈을 구하며 끝나는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는 어떠한 응답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느끼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의 충만함이 응답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려면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하나

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기쁨과 만족은 좋아하는 대상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돈 걱정이 있었을지라도 기도가 끝날 때에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좋겠다는 기대와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돈 많이 벌리겠지, 기도하면 건강하겠지'라는 기대와 다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문제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위선적 상태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써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기도는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위선적 기도를 벗어날 때에 기도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8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발타로게세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어원과 의미가 불명확한 단어로써 일반적으로 술주정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빗댄 의성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단순히 표면적 의미로만 사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술주정하듯이 같은 말을 중얼대거나 빈말을 한없이 늘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 없다고 보신 그 말들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때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지만 이 또한 마음에서는 간절하고도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불상 앞에서 백일기도하는 것도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필요하고 단순한 주절거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겹게 여기시는 이러한 무의미한 주절거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또 사업가가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간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아무 의미 없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제안을 받으시고 비로소 곰곰이 생각하신 후에 승낙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소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계획과 판단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생의 모든 순간에 대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바라는 대로의 계획을 기도랍시고 늘어놓아 봤자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해하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기도를 한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들이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내 판단과 생각과 소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민이라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5,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부품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조합이 될 때에 자동차는 완전해집니다. 단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는 부품이 없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에 나는 스위치만 켜면 됩니다. 시동만 걸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유하자면 내 삶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25,000개의 생각으로 짜 맞추어서 만드신 자동차입니다. 내 신체를 이루는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들로 시작해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와 직업, 취미, 휴가, 여행, 결혼, 연애 등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5,000개의 부품이 자동차를 이루듯이, 내 삶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짜여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생각이 보석 같이 값진데, 심지어 그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25,0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나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모래알 같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잘 때는 물론이고 깰 때에도 내 곁에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있으심을 망각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월세 방에 살고 몸이 아픈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한 것도 몸이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 중의 하나입니다. 이 보배로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는 차 중에서도 명품 차입니다. 롤스로이스나 페라리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명품 차에 망치로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망치로 박은 이 대못은 25,000개의 부품 어느 것과도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차문에 못을 박습니다. 건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범퍼에 못을 박습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를 내 생각대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차에는 대못이 박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봅니다. 요셉의 삶은 모함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질투하여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에서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했지만 요셉이 거부하자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를 복직시켜주었지만 잊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안 풀리고 억울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실은 이러한 삶의 과정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히브리 유랑민의 열한 번째 아들이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는 요셉의 삶을 통해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가시(말뚝)라고 표현할 만큼 괴로운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시자 바울은 이 말뚝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병은 그저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친화적 조건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로 나가게 되고 주의 생명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있다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지 않고 무조건 낫기만을 바란다면 명품차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나의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석 같은 뜻이 이루어져가는 중입니다.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기준으로 보면 하마는 목도 짧고 다리도 짧고 굵습니다. 그러나 기린을 기준으로 보면 말도 목이 짧고 다리가 짧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마는 말보다 못하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마는 그 모습으로 하마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면 나는 돈이 없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과 비교하면 나의 다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병이 들었어도 나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보배 같은 생각과 계획이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프고 실패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그 기준에 맞춰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생각들로 만들어진 명품차에 내 생각의 못을 박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큰 골격은 두 번의 '그러므로'와 두 번의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위선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대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위선적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으로 짜 맞추어진 인생에 나의 생각이라는 망치로 대못을 박으려는 이방인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몸의 가시로써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명품차를 만드시는 계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품차에 대못을 박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위선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방인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빼면 주기도만 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도는 주기도뿐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래오래 기도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약속된 은총이 10%에서 20% 30% 40%가 되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은총이 확장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언약으로 묶어주시고 그 은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유일한 기도까지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에 임함으로써 백 번 기도드리면 백 번 응답 받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